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조민지(Min-Ji Jo)*

목차

1. 서론	& Museum
2. 이론적 배경	3.3 Lyndon Baines Johnson Library and Museum
2.1 대통령 기록물과 기록관리	3.4 Jimmy Carter Library & Museum
2.2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의 구조와 유형	3.5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3.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분석	3.6 해외 사례의 시사점(종합)
3.1 Truman 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	4. 한국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3.2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5. 맺음말

<초록>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ABSTRACT>

Presidential records which have produced during a presidency as a national center are the evidence of the presidency and main historical records.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establish fundamental systems to produc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and to manage such main historical records which could help people and history to judge the presidency based upon the evidence of their activities. The historical appraisal could be achieved not by memory but by evidence. A draft of a proposed law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libraries for the presidential records Mecca is being moored at the National Assembly now. The presidential library is to be considered as a multi-functional national institution which is carrying out the role as an Archives, Museums and Center for the education. In addition, it is imperative for a presidential library to provide user-oriented services to enrich the usability and the value of records, recognizing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paradigm from a supplier-oriented system to a customer-oriented system. This dissertation, in order to develop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focusing on customers rather than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reviewed programs of the U.S. presidential libraries as a developed case and proposes guidelines and applicable sampl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programs.

Keywords: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Presidential library service, Archives service program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객원연구원(jemzeno@hanmail.ne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No Records, No Government)는 모토아래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확정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후 2006년 2월 국무회의에서 기록관리 혁신 종합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10여년에 걸친 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결정하였고(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제도 혁신 팀 보도자료 2006), 대통령기록관 설립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안이 2007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 참여정부의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기부터 국가 기록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¹⁾ 2004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록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²⁾가 내려진 이후, 기록관리 문화를 통한 정부 혁신을 이점포 중 하나로 삼고 그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록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유례없는 관심 속에서 제도적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결정이 가진 파급력과 그 속도를 실감하게 하는 한 예로 볼 수 있다.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며 동시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이다. 제 2공화국 이외에는 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해 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막중하고 광범위한 권한³⁾을 행사한다. 또한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수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정치를 초월하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이 같은 상징주의는 대통령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통령이 갖는 의미와 지위·권한이 막중한 만큼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은 공공 기록물의 최고 정점이란 속성을 가지며 중요성도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시몬 바일은 “과거를 파괴하는 것은 모든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다. 역사는 보존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 다소 잘못된 것이 있다하여 그것을 청산한다는 명분아래 과거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김충남 1998, p.37). 그러나 퇴임하는 대통령이 몇 트럭분의 대통령 임기 중 기록물을 사저로 갖고 나갔다는 기사⁴⁾에서 보여지 듯,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으로 대표되던 조선시대 기록전통이 현대사에 와서 그 맥이 완전히 끊긴 셈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다수의 무관

-
- 1) 노무현대통령 대통령 당선자 시기 국가 비전 21에서 밝힌 내용. “청와대의 모든 회의기록과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 기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독립심의 기구에서 심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2) “기록 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 부분에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첨단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7.19. 수석 보좌관회의,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2005. 7.에서 재인용.
 - 3) 외교,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등.
 - 4) “남다른 기록 열로 유명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때 트럭 서너 대 분량의 통치기록을 짐으로 가져갔다.” 세계일보 ‘기록이 없는 나라1-2 주요 국가 기록이 없다’ 2004.5.30.

심 속에서, 현대사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기록물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파기되고 흩어졌다. 대통령 비서실의 직책 중 통치사료비서관(1급)의 명칭을 국정기록비서관(1급)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에서는 다행히 정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처리 중에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대통령기록물 생산과 관리, 활용, 대국민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기록관의 역할에 그 수집과 보존적 개념이 더 강했다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의 역할은 기록관과 박물관적 요소를 혼합하여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직 실체가 없는 기록관에 대하여 본 논고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루려는 목적도 대통령기록관이 갖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 인수, 보존, 연구보조 기능에 더하여,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 대통령기록의 전시와 박물관 운영이라는 부차적 기능이 포함된다. 역사 흐름의 중심이자 상징이었던 대통령직(presidency)에 대한 가치와 재평가를 위한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활동, 박물관 활동, 각종 이용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대중이 대통령 개인과 대통령 임기동안의 기관, 국가정책 시스템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행하는 역할도 갖고 있음(주희경 1999)도 대통령 기록관을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그러므로 O'Toole이 기록의 이해에서 밝혔듯, 기록관 설립을 위한 초기 계획에 기록 이용자 관리 정책이나 절차

에 대한 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자서비스'라는 분야는 다른 기록관 기능과 비교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 뒤늦게 정체성을 확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산출부서의 기록물 생산에서 시작하여 평가, 이관, 분류, 기술로 이어지고 정보서비스와 확장서비스로 끝난다는 활동 연속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는 공통적인 가정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록관 형성 초기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Pugh 1992). 그러나 정보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정보 행태의 고도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그에 따른 행정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3세대 행정의 목표로 볼 수 있으므로(행정자치부 2005, p.10), 이용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케팅적 관점의 이용자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본으로 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기록 보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이 초기에 마련되어야 기록관 운영의 활성화와 기록이 가진 가치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기록관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이용자나, 기록관의 존재를 모르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잠재적 기탁자까지를 아우를 수 있을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대통령 기록관의 개념

정의의 하자면,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대통령 기록관은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을 의미하는 줄임말이며, 본문에서는 “대통령 기록 박물관” “대통령 기록 도서관”이란 어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석 범위는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의 여러 분야 중 특히 고객 중심의 이용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사례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면, 행정적 기록관 서비스 관점보다는 이용자 확장 서비스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기록관 사료와 이용도를 높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선진 사례는 대통령제의 출발지이면서 제도화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갖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적 정서에 맞는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4장에서 제안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염두에 두고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영구기록물을 다루는 아카이브즈의 개념의 대통령 기록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역대 대통령 박물관류를 한 공간에서 관리하는 통합형 대통령 기록관을 전제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미국 대통령 기록관을 일일이 방문하고 이용한 후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미국 기록관이 활발한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

스⁵⁾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록관에서 온라인으로 올린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 것이 이 논문의 한계임을 미리 밝혀둔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통령 기록물과 기록관리

2.1.1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의의

대통령 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 스스로가 생산한 기록보다는 대통령 보좌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각급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이나 이관에 있어서 여타 다른 공기록물과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대통령관련기록물의 보존 관리)에는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와 생산현황통보, 임기 종료 후 이관 사항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주⁶⁾

- ①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 ②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 ③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

5) 미국은 온라인을 통해 기록관 서비스의 70%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희숙, 「인터넷을 통한 기록관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25).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 케네디 대통령 기록관은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소장 원문의 100%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수행할 것이라고 2006년 6월 발표(NARA Staff Bulletin, no. 554, July/August 2006, p.8).

6) 내용 출처 : 2006년 6월 12일 일부 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8조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 제1항.

- ④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기록물
- ⑤ 대통령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 ⑥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 ⑦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 ⑧ 기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 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

본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06년 7월 상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는 위의 기록물 범주에,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산기관도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막중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 기록의 최정점 기록이라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수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정치를 초월하는 국가의 상징이므로,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의의도 가진다. 또한,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통령인수위원회이든 처음 접하는 업무일 수밖에

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직학습 역할로서의 대통령 기록과 그에 대한 관리가 갖는 의미는 막중하다(김정해 2000). 대통령직 수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도 겸하기 때문이다.

2.1.2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과 관리

1999년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이전의 한국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과 함께 파괴되거나 생산 자체를 기피했던 바, 격동의 한 시대를 헤쳐 온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흐름을 같이한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자신의 사 기록물로 인식되었고,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적 기록물을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유출하거나 파괴⁷⁾하였다. 그 동안 대통령 기록물 관리 또한 당연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기록원에 넘겨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12만 1538건 중 8만 9541건은 역사적 가치가 없는 단순 민원신청 내용이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 10. 28.) 그것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문서들이었다. 유실된 것으로 판정된 역대 대통령 주요 통치사료는 다음 <표 1>과 같다.

그러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이관된 사례였던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도 양적으로는 정부수립 이후 지난 50년간 누적된 역대 대통령 기록물보다 많은 수치였고,⁸⁾ 전자기록까지 이관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긴 했으나 완전한 이관이 성립되지 못한

7) 통치사료 증발과 관련하여서는 2004. 5. 30. 세계일보 참여연대 공동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 1-1, 국가 기록이 사라졌다>와 <기록이 없는 나라 1-2,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참조.

8) 2007년 현재 역대 대통령 기록물 총 소장수는 287,536점으로 그 중, 김대중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총 157,580점이다. (수치 자료 출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제공 기록물 보유현황)

〈표 1〉 유실된 역대 대통령 기록물 주요 통치 기록

대통령	주요내용
이승만	1951. 국민방위군 사건 대책 관련 기록물 1958. 조봉암 사건 대책 관련 기록물 1960. 3·15선거 대책 관련 문건
박정희	1961. 국가 재건 최고 회의 회의록 1965. 미국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회의록 1969. 3선 개헌 배경에 관한 관련 기록물 1972. 유신체제 수립 배경 관련 기록물, 김대중 전 대통령 피랍사건 조사나 회의록
최규하	1979. 통일주체 국민회의 최규하 대통령 10대 대통령 취임사, 12.12 사태 관련 보고 198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고
전두환	1980. 국보위 회의록, 삼청교육추진 배경 관련 기록 학원 정화, 언론 통제합 추진 배경 수석실 보고 기록
노태우	1987.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약속한 6.29 선언문 1990. 러시아 수교 추진 배경 관련 청와대 수석실 보고 문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록
김영삼	1993. 쌀 개방 대국민 사과문 1997. IMF 발생 원인과 대책 강구 등에 대한 보고서

[출처] 세계일보, 기록이 없는 나라-국가기록이 사라졌다. 2004. 5. 28. 뉴스 메이커 커버스토리, 역대 대통령 통치사료-집으로, 2006. 5. 26. 내용 재구성.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산현황보고에 있어서 목록작성이 철저하게 수행되어 있지 않아(김경남 2003, p.101) 재입 시기 생산된 기록 모두를 포함하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계보다는 인수에 중점을 둔 대통령직인수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관련 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태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보고서(참여연대 이슈 리포터 2006. 5. 4.)에서도 지적하였듯, 청와대에서 목록 자체를 자의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는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 기록원에

서 소장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 기록물의 소장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현 참여정부에서는 기록관리 혁신 의지⁹⁾를 갖고 정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 과제로 청와대를 시작으로 e-지원 시스템¹⁰⁾과 신전자 문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 기록물을 남겨 대통령 기록 관리 혁신을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9) 기록관리 혁신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2005.1.28. 대통령 신년 연설 시), “후일의 역사에게 자료 제공 위해서 수준 있는 관리가 되어야”(2004.6.8. 국무회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 행정의 기본 제도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첨단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200.10.4. 수석 보좌관 회의), “100% 기록을 남긴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록 관리를 100% 완벽하게 해야”(2005. 10.4. 국무회의)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설명자료, 2006.7.에서 재인용.
10) e-지원은 ‘디지털 지식 정원’의 약어로, 2004년 초기 버전 이후,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문서관리 시스템과 공적 행위의 철저한 기록화를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청와대 내부 업무관리를 위한 시스템. 2005년 7월 이후는 각 자문위원회에서 사용 중이며 2006년 3월말부터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경호실 등 5개 부처에서 우선 운용하고, 2006년 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보급.

〈표 2〉 국가기록원의 역대 대통령 기록물 소장 현황 (2007년 1월 현재)

	합 계	문서(건)			시청각 (점)	전자기록물 (점)	행정박물등 (점)
		소계	대통령비서실	각급기관			
합 계	331095	200467	164907	55560	79605	30624	399
이승만	7416	4029	715	3314	3387		
허 정	185	172	0	172	13		
윤보선	2040	1572	0	1572	468		
박정희	37614	25501	9044	16457	12046		67
최규하	2198	909	105	804	1283		
박충훈	69	66	0	66	3		
전두환	42535	16221	4782	11439	26181		133
노태우	21211	8476	2494	5982	12667		68
김영삼	17013	13812	8214	5598	3091		110
김대중	200814	149709	139553	10156	20466	30624	15

[출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특수기록물 보유현황

지금까지 유출된 역대 대통령 기록물의 발굴 수집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전직 대통령과 보좌진, 후손들의 기록보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의 구조와 유형

2.2.1 기록관 서비스의 구조

기록관에서의 서비스란 현재의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가 기록관의 소장 기록을 찾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Pugh op. cit., p.17). 기록관을 찾는 목적으로는 ① 행정적 이용 ② 연구 수행을 위한 이용 ③ 공공 이용 ④ 역사/문화적인 이용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상이한 이용자 그룹에는 상이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 안내를 한다든지 이용자 등록을 돕는 것, 자료 위치를 확인해 주고 전달하는 것 등의 행정업무도 기록관의 서비스 중 일부이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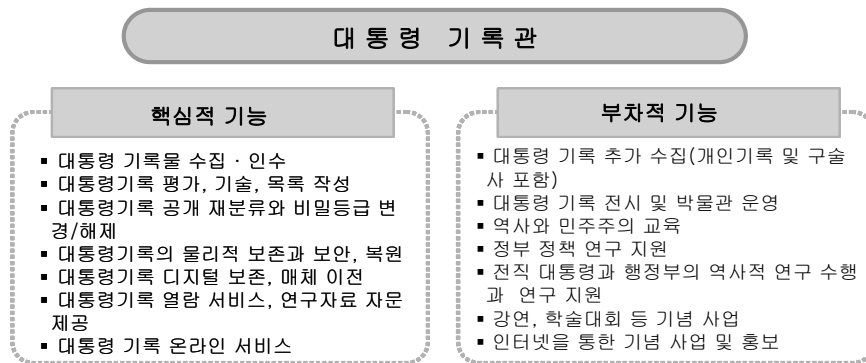
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 기록관과 그 이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물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소장물에서 별도로 추출한 자료 및 컬렉션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④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⑤ 다른 기록관이나 정보원으로서의 안내 ⑥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안내 ⑦ 소장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제공 ⑧ 소장물의 복사 등이 있다. 기록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전문가 배치가 중요하며, 효율적인 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전 과정과 업무에 대한 정기적 평가가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중요 요소로 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현대 정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록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① 온라인 목록, ② 온라인 전시, ③ 기록물의 디지털화, ④ 전자 메일을 통한 이용자와의 커

뮤니케이션, ⑤ 인터넷을 통한 학생, 교사 수업 자료 제공, ⑥ 기록물 사본 인터넷 주문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직접 기록관을 방문할 수 없는 지역의 이용자를 위하여 사료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직접 방문하여 찾아볼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을 기록관사료의 존재성과 가치를 살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Forde 2005, p.196).

2.2.2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의 의의와 특징
대통령의 자리는 한시적으로 끝나지만 그의 생애와 재직 시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 역사의 한 장면을 국민 앞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고안한 것이 대통령 기록관(Presidential Memorial Library)의 취지이다(최정태 2004, p.527). 대통령 기록관의 의미와 정의에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 개관한 아칸소 주 클린턴 대통령 기록박물관의 설명을 인용하면, 대통령 기록 도서관

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적 의미의 도서관이 아니다. 대통령 기록 도서관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전시 서비스를 통해, 우리 대통령에 관한 기록과 물리적 역사를 보존하는 영구 기록물 기록관이면서 박물관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 기록 도서관을 일컬어 모든 미국인이 주인인 '민주주의 교실'이라고 했다.¹¹⁾ 그러므로 기존의 국가기록보존시설이 갖는 일상적 행정적 의미로서는 대통령 기록이 갖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6, p.166). 대통령 기록관은 영구 기록물 기록관(archives)의 개념에 박물관(museum), 역사적 연구 및 교육의 장(research and education center)의 역할이 더해진 다기능 국가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기록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내용 출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 보고서, 2006, p.195, 내용 재구성

<그림 1>

11) Presidential Libraries are not libraries in the usual sense. They are archives and museums, preserving the written record and physical history of our presidents, while providing special programs and exhibits that serve their communities. These libraries, described by President Reagan as classrooms of democracy, belong to the American people.

다가능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 기록관이란 의미는 기록관을 방문하거나 찾는 이용자 그룹이 더 다양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피터 헤르논은 “서비스의 품질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한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다(Hernon 2001)”라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이용자 그룹을 위해 제공될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는 이용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고객 정의를 수립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용자 세분화(user segmentation) 과정은(Yeo 2005, p.27) 이용자 요구가 다양화, 개별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기록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용자 세분화를 통하여 세분 그룹별 이용 요구와 주요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여 적시에 적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은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계획에서 필수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에서는 박물관의 마케팅 전략과 효과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Stout 2002, p.11).

대통령 기록관이 갖는 특성상 다양한 이용자가 기록관을 찾을 것이지만, 또한 대통령 기록관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기록관을 모르거나 상대적으로 관심 적은 이용자, 주요 기록물을 기탁할 잠재적 이용자도 고객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의 역할과 중요성이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현재 이용자에게는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의 기회를 유도하고, 잠재적 이용자에게는 기록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관심을 끌 수 있을 다양한 밀착 프로그램 유형이 요구된다. 기념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시를 하고 출판물을 하는 일회적 활동이 아닌, 지역과 기록관·고객과 기록관 사이의 폭넓은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Weir 2004, p.75). 특히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나 학생, 소외계층을 고려한 서비스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허무는 날이 진보하는 현대 기술도 최대한 활용하여,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이용자나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기록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3.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분석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우선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미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정치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별도의 대통령 기록물법¹²⁾과 기록관 제도를 가진 미국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

12) 미국 대통령 기록물법은 1978년 제정되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말미암아 임의적으로 기록을 파괴하려하자 미국 의회는 1974년 12월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대통령 기록물보존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닉슨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결국, 1958년에 대통령 기록물의 법적 지위를 명기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닉슨 기록물은 NARA로 몰수되었으며, 닉슨 대통령만이 개별 Presidential Library가 아닌,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Project란 이름으로 기록물을 남기게 되었다.

의 대통령제를 보고 만든 제도라 할지라도, 미국과 우리나라 대통령제도와 문화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개인을 중시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대통령직(presidency) 자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김충남, 앞의 책, pp.46-47. 재정리)는 근본적이 차이점을 먼저 들 수 있겠다. 또한, 미국 대통령 기록관은 지지자들의 설립 기금으로 민간이 먼저 주도적으로 설립한 후 국가에 기부하는 형식이어서(한국국가기록연구원 p.27), 우리나라가 염두에 두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대통령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과오가 공개될 수 없는 구조로 35대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 기록 박물관을 예로 들면,¹³⁾ 케네디 기록 박물관 재단의 회장은 케

네디의 딸 Caroline Kennedy이며, 운영 위원은 케네디 대통령의 사위 Edwin A. Schlossberg,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Kathleen Kennedy Townsend를 포함한 다수의 최측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기록관이 각종 전시, 강연회, 연구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불거리와 배움의 장소를 제공하고 민주적 정치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참고로, 미국 11개 대통령 기록관과 닉슨자료의 2006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11개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 중,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록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통계 - 각 대통령 기록 박물관 이용 현황

대통령	기록 열람	서신 문의	프로그램 참가자	박물관 방문
후버	495	1,241	26,660	50,097
루즈벨트	1,387	2,548	10,306	108,589
트루먼	1,013	2,601	17,446	135,316
아이젠하워	1,343	3,325	9,796	69,248
케네디	1,227	2,052	25,654	191,986
존슨	1,361	2,635	16,951	210,473
(닉슨 자료)	-	1,833	100	-
포드	1,270	2,388	8,775	58,784
카터	571	853	8,954	62,223
레이건	562	675	20,515	440,301
부시	361	1,156	33,020	140,674
클린턴	228	2,946	23,860	302,151

13) 명단 출처: 케네디 대통령 기록관 웹사이트 Kennedy Library Foundation, Board of Members 명단 중.
 14) 단위: 명, 수치 출처: NARA's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6, complete form, p.22.
 <<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performance-accountability>>

3.1 Truman 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 (트루먼 대통령 기록 박물관)

3.1.1 개요

트루먼 독트린, 마셜플랜으로 대표되는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부터 53년까지 재임한 미국 33대 대통령이다. 기록관은 1957년 7월 6일, 루즈벨트 대통령 기록관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었고,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 위치한다(500 W. U.S. Highway 24, Independence, Missouri 64050-1798). 연평균 130,000(15)명의 방문자가 다녀간다. 1972년 트루먼 대통령 사망 후 이 곳 기록관 뒤뜰에 안장되었다.

3.1.2 특징 1 - 이용자 세분화를 통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

트루먼 대통령 기록 박물관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

그램 제공에 있다. 대상은 초등학생/중·고등학생/고등학생 이상 일반인/교사로 나누었다.

우선, 학생 그룹을 위한 별도의 Kids Page를 마련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지루하거나 거부감을 주지 않는 정보 혹은 사실 전달을 위해 멀티미디어, 퀴즈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제공한다. 콘텐츠 이용의 적절한 학년을 각기 명시하고 있다.

중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 그룹에게는 주로, 트루먼 재임 시기의 중요 사건(예로, 한국 전쟁, NATO 조약, 마셜플랜 등)과 업적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 전달 성격의 워크샷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는 반드시 트루먼 재임 시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기록관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바로 대상이 되는데 예로, 가장 최근 있었던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의 퇴임 강연회를 들 수 있다. 이 강연회는 트루먼 대통령



〈그림 2〉 트루먼대통령 기록 박물관 웹사이트 첫 화면

15) 수치 출처: Truma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웹사이트, "Library facts" <<http://www.trumanlibrary.org/index.php>>

기록관 내에서 개최되었는데, 강연회 전 과정이 녹화된 비디오 파일, (정확한 의미 전달과 영어 듣기가 힘든 외국인을 위한 배려인 것으로 보이는)내용 스크립트 파일을 별도로 제공한 후, 학생들이 강연회 내용을 꼼꼼하게 보았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의 주·객관식 퀴즈 문답 형식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두었다. 향후 더 생각해 볼 과제나 주제도 미리 제공하고 있어, 심도 있는 접근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 눈에 띄는 것은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과 후버 대통령 기록관이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콘텐츠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한 두 전직 대통령의 우정에 관한 자료 기반 프로그램이다. 역사적 사실 전달에 소장 자료를 활용하고, 원문을 제공하는 형식을 통해서 소장 연구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당시 정치적 사향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유도하는 액티비티 자료를 별도로 링크시켜 프로그램 범위를 자연스럽게 확장 시켜주고 있다.

3.1.3 특징 2 - 활발한 연구, 자료 활용 지원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에서 연구와 자료 활용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주제별, 사건별 컬렉션 분류 작업을 심도 있게 나누어서 그 관련 자료를 묶고, 재가공하여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를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이다.

이용 편의성과 소장 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

별 묶음 제공은 학생, 교사, 연구자 등 대상별로 다시 나뉘어지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제공 형식도 달라진다. 예로, 같은 2차 세계 대전 에 관한 주제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는 “2차 대전의 일급비밀”이란 주제로 그룹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액티비티 주제(예로, 비밀문서 분류 기준),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역사적 다양한 관점, 향후 토론 주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같은 주제로 교사를 위해서는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 수업 목적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는 문제 제기 예문, 관련 소장 사료 원문, 기록관 외의 관련 자료, 대상 학년에 따른 액티비티 유형 예시를 20일 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학급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의 계획, 방법, 일정까지 소상히 예시한 주제별 자료묶음을 지역 내 학교에 2주간 무료 대여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수업 부교재로 쓸 비디오 기록물을 무료로 2주간 관외 대출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들이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서 탐구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53가지로 나눠서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으로도 검색,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한편,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에서 관련 연구를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장학 지원금 프로그램은 대상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 Research Grant : 대학원생 이상 박사 후 과정(post-doctoral scholar), 전문 연구자 대상. 격년으로 제정하며 최고 \$2,500까지 지급.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 소장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1주일에서 3주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Dissertation Year Fellowship : 트루먼 대통령의 공공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학생에게 지급. 장학금액은 \$1,600이며 매년 한 두 편의 논문을 선정.
- Undergraduate Student Grant : 학부 졸업 논문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생애나 업적, 특히 공공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관련하여 쓰기를 희망하는 학부생 대상. 반드시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을 직접 방문하여 소장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장학금으로 \$1,000 지급.
- Scholar's Award : 향후 연구 주제를 트루먼 대통령의 공공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관련하여 방향을 잡겠다고 계획하는 박사 후 과정 학생 대상. 장학금은 \$30,000이며, 선정은 매 격년 이뤄짐.

소장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상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며 어떤 관점이든 그의 업적 혹은 정책 재평가를 독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보여진다.

3.2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케네디 대통령 기록 박물관)

3.2.1 개요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재임한 미국 35대 대통령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극복과 아폴로 우주 프로젝트(Apollo Space Program)등으로 대표되는 그는 재임 시 암살되었으며, 대통령 기록관은 사망 16년 뒤인 1979년 건립되었다. 기록관 소재지는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이다(Columbia Point, Boston, MA 02125). 2005년도에는 전체 미국 대통령 기록관 중 레이건 대통령 기록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기록하였고, 2006년 한 해 동안은 부시, 클린턴 대통령 기록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기록¹⁶⁾한 곳이다.



〈그림 3〉 케네디 대통령 기록 박물관 웹사이트 첫 화면

16) 〈표 3〉 참조.

3.2.2 특징 1 - 다양한 주제와 소재의 전시 서비스

케네디 대통령과 그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지명도와 유명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케네디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은 대통령 기록 박물관에서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주제와 소재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먼저, 대서양 바다에 면해 있는 기록 박물관 뒤뜰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15세 되던 해에 부모로부터 받은 생일 선물인 개인 요트 "Victura"가 전시되어 있다. 본 전시실로 가기 전 중앙 홀은 연 2회 정도의 주기로 전시가 변경된다. 예로,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 케네디 가문 선조의 고향인 아일랜드를 방문 했을 때의 기록을 보여주는 "A Journey Home: John F. Kennedy in Ireland"에서는 방문 일정을 잡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회의기록, 서신, 식사 메뉴, 만찬 참석 명단을 포함하여 방문 중 선물로 받은 케네디 가문 출현이 처음으로 기록된 대장 원본(1336년 3월 5일 기록), 방문 동안 촬영된 동영상, 신문 기사, 케네디의 외가인 핏제럴드 가문이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올 때 갖고 왔다는 성경책¹⁷⁾도 전시되어 있다. 2007년 1월 현재는, 어머니 로즈 케네디의 비망록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의 백악관 시기 중 사용된 만찬 집기와 테이블 세팅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본 전시실에서는 1960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케네디 암살 소식까지 이어지는 대통령직 수행 시기의 기록과 박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 내용은 1960년 당시의 미국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비누, 옷, 화장품, 토스터기, 냉장고, 텔레비전, 다리미 등의) 여러 공산품을 비롯하여, 대통령 선거 일정을 그대로 재현한 스튜디오와 기록한 필름을 대통령 육성 그대로 들려준다. 주요 업적이었던 아폴로 우주 계획과 쿠바 위기에 관련한 필름, 자필 메모, 자필로 수정된 연설 원고, 회의록 등을 전시하고 있다.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법무장관 시절 사무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 케네디 부부의 결혼식 필름, 귀빈들로부터 받은 선물, 재임 시 각국의 어린이가 선물로 보낸 그림, 딸 캐롤라인 케네디에게 각국에서 선물로 보내온 인형들 등도 전시되고 있다. 대통령 부인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전시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영부인으로 활동하던 시기까지의 대부분의 기록과 개인 소장품이 그 소재가 되고 있다. 갓 태어나 찍은 사진, 처음 선물 받은 성경, 학생 시기의 성적표, 여행일기, 백악관에서 그림 작가와 교환한 서신,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직접 그린 그림, 직접 백악관 소개를 하였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과 당시 입었던 의류, 국빈으로 외국 여러 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연설 필름, 선물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었다.

본 전시실을 나서기 전 홀에는 전 세계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리나 건물 등에 대한 사진을 전시하고 있으며,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 대한 기록, 로버트 케네디

17) 이 성경책은 케네디 외조부가 케네디 부모의 결혼을 허락한 메모가 쓰여져 있고, 앞장에는 케네디 어머니인 로즈 케네디가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한 자신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기록한 생일과 시간이 적혀 있다.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 성경책을 증거로 선서를 했다고 한다.

인권상과 각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전시¹⁸⁾가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의 고등학교 생이었던 시기, 백악관에서 처음 케네디를 만났던 당시를 회상하고, 자신의 역할 모델이 되었다는 인터뷰를 직접 그 장소에서 하는 동영상도 전시되고 있다. 현재의 전시, 철수된 지난 전시, 앞으로 계획된 전시(개요)가 모두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3.2.3 특징 2 - 이용자 배려 서비스 정책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은 비영리 기관이나 유료 입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케네디 기록관의 경우, 어른 \$10, 노약자/학생 \$8 으로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그러나, 보스턴을 비롯한 메사추세츠 주 인근 지역 도서관들과 연계하여 museum pa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패스는 해당 도서관에서 미리 신청하면 한 패스에 4명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보스턴을 여행하는 방문

관광객을 위해서는 city pas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합 40%정도 저렴한 가격에 박물관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화 전문가가 전담하여 안내를 하며, 모든 동영상 필름에는 청력이 약한 이용자를 위한 스크립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이용자를 위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로 된 안내 책자를 구비하고 있다.

3.3 Lyndon Baines Johnson Library and Museum (존슨 대통령 기록 박물관)

3.3.1 개요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행정부시절 부통령이었다가 케네디 대통령 사망일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미국 36대 대통령이다. 재임 시기는 1963년부터 69년까지로 1971년 설립된 대통령 기



<그림 4> 존슨 대통령 기록 박물관 웹사이트 첫 화면

18) 이 전시에는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했던 우리나라 김근태 의원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그의 딸이 매일 접어 보냈다는 종이학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록관은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 내에 위치한다(2313 Red River Street, Austin, TX 78705). 건립을 위해 민간 기금이 모금된 것이 아니라 대학이 건립을 유치하고 주도한 케이스이다.

3.3.2 특징 1 - 구술기록 수집과 적극적인 비공개 전화 녹취록 해제 서비스

존슨 대통령 기록관은 연구자를 위한 심도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색인, 주제별 세목을 별도로 제공하고, 각 자료에 따른 연결고리(사건과 관련 사진 링크)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구술기록 수집과 정리, 전화 녹취록에 대한 단계적 해제 서비스는 괄목할만하다. 구술 기록 수집은 오스틴 소재 텍사스 대학의 “존슨 대통령 행정부에 관련한 구술 자료 수집 프로젝트”와 “존슨 대통령 기록 박물관 구술 기록 수집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수집하였다. 관련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자료를 모았으며, 전문 스크립트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 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공식 대통령 기록에서 알 수 없었던 맥락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서비스는 존슨 대통령 재임 시기의 전화 녹취록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래 존슨 대통령은 이 녹취록을 대통령 사후 50년까지 비공개 기록으로 지정하였으나, 1992년 제정된 케네디 대통령 암살 관련 기록수집 법(JFK Assassination Records

Collection Act)으로 인하여 관련 녹취록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존슨 대통령 기록관 관장의 결정 하에 1994년 처음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전화 녹취록 공개 서비스로 인하여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90년대까지 역대 대통령 기록관 중, 해마다 가장 많은 방문자와 서신 문의를 기록하는 곳이 되었다. 레이건이나 부시, 클린턴 대통령 기록 박물관이 정상 궤도에 오른 가장 최근에도, 박물관 방문자수로는 2005년, 2006년에는 세 번째, 서신 문의로는 2005년에는 세 번째, 2006년에는 두 번째, 기록 열람으로는 2005년, 2006년 모두 두 번째 많은 열람자수를 기록하고 있다.¹⁹⁾

전화 녹취록은 케네디 대통령 관련 기록과 백악관시절 기록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목록과 내용 하이라이트는 1964년 4-6월 자료부터 시작되며, 매년 점진적으로 재정리하여 공개한다.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전체 목록과, 관련 사진 링크, 스크립트, 간략적인 내용 소개를 볼 수 있으며 유료 구매도 가능하다. 원문 스크립트는 장당 \$0.25 에, 음성 테이프나 CD 포맷은 장당 \$8(케네디 대통령 시리즈는 \$6)에 판매를 한다.

전화 녹취록을 공개할 때마다 별도의 “공개 행사”를 통하여 관련 기록과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 가장 최근 공개 행사는 2006년 11월 17일에 있었으며, 존슨대통령 재임시기인 1966년 8월-12월분 전화 녹취가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 전쟁

19) 수치 출처 : NARA's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6, <<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performance-accountability>> Report 2005, <<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performance-accountability/2005>>

과 관련한 국방부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와의 통화 내용, 전직 대통령 아이젠하워와 포드 대통령에게 베트남 전쟁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내용, 딸 루시의 결혼과 관련하여 부인 레이디버드 여사와 결혼선물, 사위에 대해 의논하는 통화 내용 등이 공개되었다. 대통령의 개인사적인 부분도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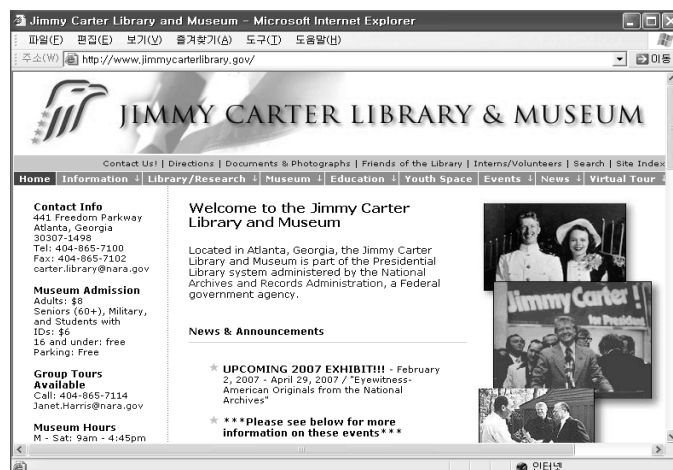
3.3.3 특징 2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같은 사실을 성인에게 전달할 때와 어린이에게 전달할 때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달라야 한다. 존슨 대통령 기록관은 이 원칙에 충실하게 성인용, 어린이용 포맷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용 온라인 콘텐츠는 효과적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단순하면서도, 흥미롭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우선, 존슨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업적을 크게 “시민의 권리(civil right),” “교육문제(education),” “환경문제(environment),” “외교정책

(foreign policy),” “가난 타파(war on poverty)”로 나누어서, 역사적 사실, 관련 사건을 먼저 알게 한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도 각 파트별로 정리되어 있다. 사진, 기사 및 관련 소장 자료를 보여주고, 생각해 볼 문제나 액티비티를 제공한 후 간단한 퀴즈문제를 풀어 제출하면 채점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존슨 대통령이라는 인물과 부인에 관해서도 어린이의 관점에서 알려야 할 정보는 알리면서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 포맷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달하고 있다. 각 사건과 관련된 존슨 대통령의 재가 문서, 관련 기록 원문을 항목마다 바로 링크시키고 내용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이 가진 중요성과 의미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3.4 Jimmy Carter Library & Museum (카터 대통령 기록 박물관)



〈그림 5〉 카터 대통령 기록 박물관 웹사이트 첫 화면

3.4.1 개요

미국 39대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은 케네디, 존슨 대통령에 이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은 1977년에서 1981년 까지였다. 1986년에 설립된 대통령 기록관은 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애틀랜타에 위치한다(441 Freedom Parkway, Atlanta, Georgia 30307-1498).

3.4.2 특징 1 - 퇴임 후 대통령의 사회 활동 지원 서비스

카터 대통령은 도덕적이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대통령직에 당선됐으나, 만족할만한 대통령직 수행을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실패한 대통령 10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퇴임하던 해인 1981년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지도력 위기(leadership crisis)”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카터는 퇴임 후 바로 사회봉사 재단을 마련하고, 취임 초기부터 준비한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들어갔다. 퇴임 후 5년 만에 건립된 그의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관련 기록을 충분히 공개하였고, 활발한 사회 서비스로 인해 퇴임 후에 오히려 눈에 띄는 결과와 업적을 쌓게 되었다.²⁰⁾ 카터재단 주도로 대통령 기록관과 카터 센터를 건립하였으며, 대통령 기록관만 연방 정부에 기증하였고 카터 센터는 재단 소유로 남아있다.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던 카터 대통령은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 했다. 카터 대통령 기록 박물관은 애틀랜타에 위치한 박물관, 카터 센터, 생가(national historic site)를 통해서 정보 전달, 교육, 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카터

센터는 퇴임 후 카터의 전 세계의 질병 타파와 인간의 권리를 위한 사회봉사의 연결 창구 역할을 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3.4.3. 특징 2 - 세분화한 단체 학생 방문자 서비스 프로그램

카터 대통령 기록박물관은 미국의 11개 대통령 기록박물관 중 유일하게(문자를 알지 못하는) 3-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정해진 매 월요일마다 3-5세 프리스쿨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국 역사, 대통령에 관련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읽어주기를 끝낸 후 기록관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미국의 자연”에 관한 투어를 진행한다.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30분 가량 박물관 내부 투어도 안내하며, 관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거나, 정원에서 피크닉을 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자를 알지 못하는 유아를 위한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단체로 방문하는 유치원(kindergarten) 이상 학생에게는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학년을 나누어 일반 안내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1학년(30분), 2학년에서 12학년까지(60-90분) 전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조지아 주 수행기준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특별 프로그램은 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하며, 유치원과 1학년학생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관련한 인형극, 액티비티를 30분 길이로 제공하며 무료이다. 1, 2학년 학생을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시민의 권리,

20) 김충남, 앞의 책 pp.211-214, 함성득, 「대통령학」, 나남출판, 1999, pp.33-41. 내용 재정리.

미국의 상징에 관하여 30분 가량의 쌍방향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다. 3,4학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역할을 해보는 역할극을 통해서 의회의 활동과 법 제정 과정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매년 9월 15일 미국 헌법의 날을 위해서는 3학년에서 7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헌법에 관한 (전체 참가자가 참여하는) 역할극 드라마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다. 5학년 이상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만든 프로그램으로는 시민전쟁, 인종차별에 관련한 역사 필름과 이야기 나누기 프로그램이 있다. 유료 프로그램도 있다. 7학년 이상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동안 진행되며 \$7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국제적 외교 이슈와 국제 분쟁 해결책, 인권에 관련된 주제로 액티비티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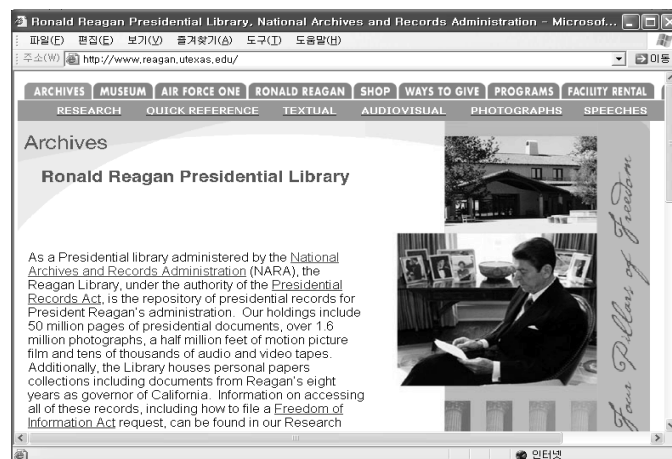
3.5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레이건 대통령 기록박물관)

3.5.1 개요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40대 대통령으로서 1981년에서 1989까지 연임했다. 기록관은 1991년에 캘리포니아 주 시미벨리에 설립되었다(40 Presidential Drive, Simi Valley, California 93065). 소장력은 500,000,000 페이지의 이상의 대통령직 수행 시기의 기록,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의 기록, 500,000피트의 동영상 필름, 25000건의 음성 기록, 150,000,000건 이상의 사진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3.5.2 특징 1 - 활발한 대통령 포럼, 컨퍼런스, 강연회 주최와 이벤트

레이건 행정부 8년간의 괄목할만한 업적을 중심으로, 매월 “레이건 포럼”을 연다. 주제 카테고리는 정부와 정치, 경제와 산업, 미디어, 학술과 관련한 네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업적 재평가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지금까지 참여한 대표적 포럼 연사로는, 상원의원 Bill Frist, 포브스 회장 Caspar Weinberger, 전



〈그림 6〉 레이건 대통령 기록박물관 웹사이트 첫화면

IBM회장 Lou Gerstner, 작가 Peter Robinson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형식으로 강연회도 매일 개최한다. 주제는 레이건 행정부의 이정표였던 4대 자유 초석(개인적 자유, 경제적 기회,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적 자존심 Four Pillars of Freedom: Individual Liberty, Economic Opportunity, Global Democracy and National Pride)를 중심으로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사로는, 미 대법관 John G. Roberts, Jr.,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Condoleezza Rice, 전 뉴욕시장 Rudy Giuliani 등이 있다.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재단을 갖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의 대통령 기록 박물관 개관식에서 “이곳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곳 기록과 박물관 역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계속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실>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²¹⁾라고 공언한 바대로, 대통령 기록박물관이 대중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지 않고, 국민의 것임을 실천하기 위해 대중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국방부 소속 오케스트라 연주회, 해군 사관학교 출신 오케스트라 멤버 등의 무료 음악회, 일반 가족 초청 대통령의 날 기념행사, 각종 지역 행사, 정부 행사 등을 주최한다. 또한, 기록관 정원이나 오디오리엄과 같은 장소를 일반인 행사에 대여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재정 확장에도 기여하고 장소 제공에 따른 홍보 효과도 얻고 있다.

3.6 해외 사례의 시사점(종합)

앞서 살펴본 미국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 대통령 기록관 문화를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벤치마킹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미국의 11개 대통령 기록관은 공통적으로 역사 전달과 그 이해를 위해 학생과 교사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관내 수행 프로그램이 보편적이거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반적·전문적 연구 지원을 위한 검색 도구, 색인, 목록 서비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고 대다수 기록관에서는 크든 작든 연구 지원금 제도를 갖고 있었다. 특히 트루먼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구체적 이용자 세분화를 통한 그룹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눈여겨볼 만하다. 케네디 대통령 기록관의 다양한 전시 소재는 시사하는 바가 크나,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각도의 소수층을 위한 배려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안겨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 존슨 대통령 기록관의 과감한 정보 공개는 미국민에게 큰 호응과 반향을 일으킨 혁신적 결정이었고, 구술기록 수집·제공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은 대통령 기록의 한계를 메우는 맥락정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퇴임 후 대통령의 역할 모델이 되었던 카터 대통령 기록관과 카터 재단은 퇴임 후 활동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었다. 끝으로, 레이건

21) 출처: 레이건대통령 기록 박물관 웹사이트, <<http://www.reagan.utexas.edu/museum/>>, NARA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v/presidential-libraries/programs/education.html>> 정리 요약.

대통령 기록관의 활발한 대통령직과 그 정부에 대한 포럼, 강연회는 대통령과 그 정부가 수행한 대통령직(presidency)이라고 하는 것이 한 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재평가되고, 재확인되면서 다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알게 하였다.

4. 한국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미국 개별 대통령 기록관의 다채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나, 역대 대통령 중 누구하나 문제없이 퇴임한 대통령이 없었던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무작

정 미국식 프로그램을 따라가기엔 무리가 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유용성 있는 요소를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와 정치·문화적 실정에 맞추어 인물 영웅화도 아닌, 역사 왜곡도 아닌, 한국적 프로그램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7년 1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 제시한 역대 대통령 공적과 과오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관²²⁾에서 제공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세분화를 통하여 유호그룹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User Segmentation)

<표 4> 역대 대통령 공적과 과오²³⁾

이승만(1948~1960) 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 / 한·미 동맹 구축 장기 집권 개헌, 정적 탄압
윤보선(1960~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9 민주 혁명 이후 상황 관리
박정희(1963~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 억압 / 유신 독재 산업화 및 한강의 기적 / 새마을 운동, 자주국방 기초 구축 /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
최규하(1979~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26 이후 전환기 상황 관리
전두환(1980~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 / 신군부 독재 체제 물가, 경제 안정 / 서울 올림픽 준비
노태우(1988~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화 전환기의 정치사회 혼란 / 비정상적 비자금 조성 북방 외교 /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김영삼(1993~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운용 실패로 외환위기 초래 군인 정치 청산 /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도입
김대중(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대북 송금 / 한·미 동맹 냉각 외환위기 극복 / 남북한 긴장 완화

22)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안에서는 통합형 대통령 기록관 설립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한 공간에 모은 통합형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하였다.

23) 중앙일보 2007. 어젠다 7 ① 역대 대통령 기록·도서관 만들자, 2007.1.2. 내용 재정리.

24) 괄호 안은 재임 기간.

국가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의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대통령 기록관은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이용자 만족도를 기대할 수 없다. 이용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유효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이용자 집단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예]

- 이용자를 세분하여 각각의 서비스 유형을 결정
 - 관심 있는 적극적 일반인
 - 관심은 보통인 관광 목적 일반인
 - 역사학자 및 전문적 연구자
 - 학교 교사 / 교수
 - 어린이
 - 중·고교 학생 / 대학생
 - 전직 대통령 및 보좌진
 - 기증자
 - 업무 목적의 유관 기관 직원
- 상대적 소수 계층의 이용자 배려 정책 수립
 - 외국인 (외국어 리플릿 배치, 오디오 가이드, 외국인 정보교류 웹사이트 홍보, 공항 홍보 등)
 - 장애인 / 노약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전문가 배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설명, 스크린 리더기 비치, 거동 장애 배려 시설, 발 조작 마우스, 기능테이블, 도구, 온라인 서비스, 약시자를 위한 확대경, 모니터, 빅 버튼 키보드, 휴식시설, 전담 안

내자 배치 등)

- 무지·무관심한 일반인 (매체 홍보, 이벤트 수행 등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그룹을 위한 정책)
- 잠재적 기증자 (가치 있는 사료를 소장한 잠재적 기탁자를 설득할 수 있는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둘째, 대통령직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수집, 활용해야 한다. (Offering Presidency Information)

역사의 평가는 제도적 기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presidency) 수행으로 남긴 활동이 중요한 국정의 증거임을 기록으로 말해야 한다. 그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재평가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적용 예]

- 대통령 기록물 수집
 - 수집·인수
 - 유출 기록물 회수 전략
 - 관련자 구술 기록 수집/추가 수집
 - 김대중 도서관 소장분, 이승만 이화장 기록, 연세대 소장분, 박정희 온라인 기념관과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한 협의
- 대통령 기록물 보존
 - 평가, 기술, 목록 작성
 - 비밀 등급, 공개 등급 재분류하여 국민 알 권리 고려

- 장기간 보존을 위한 복원, 보수, 보안 작업
- 디지털 매체 이전, 보존

- 대통령 기록물 활용
 - 주요 기록물 안내 리플렛, 팸플릿 배치
 - 목록 공개
 - 열람 서비스
 - 온라인 목록, 온라인 원문 제공 서비스
 - 주제별 컬렉션 화와 목록 제공
 - 사료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개발

셋째, 대통령 기록물의 메카로서 연구수행을 지원해야한다(Research Support).

대통령 기록관이란 공간을 별도로 설립하는 이유는 역대 대통령에 관한 기록을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기록물의 메카로서 대통령 기록관은 역사와 대통령 관련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적용 예]

- 전직 대통령의 연구 및 사회 활동 지원
 - 기록관 내 전직 대통령의 연구 공간 제공
 - 전직 대통령의 강연회, 출판 주도
- 민간 혹은 공공 기관의 역대 대통령 · 행정부 관련 정책연구 지원
 - 연구 장려를 위한 연구 기금 조성
 - 역대 대통령 관련 연구 성과 선발 정례화
- 역대 대통령 관련 강연회, 세미나 개최
 - 학자, 저널리스트, 작가, 공공정책 분석가, 역사가, 학예연구사, 교사, 전문연구자, (아마추어) 향토사학자, 족보학자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심도 있는 강연회, 포럼, 세미나 주최

- 연구자의 연구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도와줄 방법 모색
 - 주제 파일시리즈별, 폴더별 목록 기술
 - 유의미한 주제별 컬렉션 미리 구성, 목록 제공
 - 다양한 검색도구 개발
 - 온라인 목록 서비스
 - 온라인 원문 제공 서비스
 - 유관 자료 해제집 발간
 - 복사, 우편 전달 서비스
 -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의 목록 업데이트

넷째,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Education for the national history and democracy).

대통령이라는 한 시대의 중심 아이콘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 치욕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 역사에 무관심했던 세대 등에 대하여 거부감을 주지 않을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이용자 그룹별로 내용과 수준을 차별화해야한다. 어느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기획으로, 왜곡되지 않고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적용 예]

- 기록관 내 교육 프로그램
 - 기록관 사료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이용자 교육
 - 어린이 방문자 눈높이의 액티비티

- 단체 학생 이용자를 위한 주제별 워크샷
 - 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 교수 자료, 활용법 전달을 위한 교사 교육
 - 관심 있는 적극적 이용자를 위한 심도 있는 주제의 교육 시리즈
 - 처음 방문자나 대통령 기록관이 생소한 이용자를 위한 기본적 단일 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 직접 방문이 쉽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수준별, 주제별, 단계별 교육 콘텐츠
 - 어린이용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콘텐츠
 - 교사용 온라인 워크샷
 - 학생을 위한 사료 기반 교육, 쌍방향 학습 프로그램
 - 기록관의 기록물 활용을 위한 이용 교육 프로그램
- 다섯째,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가치 전달을 해야 한다(On·off-line Exhibitions).
-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물 중 가치 있는 컬렉션을 선별하여 시기적절한 전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시 서비스는 기록관이 가진 유용성을 입증하고 정보전달과 교육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또 다른 도구이자 수단이다. 온라인을 통한 전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으며, 물리적·신체적 제한으로 이용이 쉽지 않은 이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선도적 방법이다.
- [적용 예]
-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의 상징성을 전달할 수 있을 기록관내 전시 기획
 - 역대 대통령 인물, 개인 연보, 주요정책, 업적 주제
 - 재임 기간의 대표적/중요한 기록 주제
 - 재임 기간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 관련 주제
 - 관련된 장소 주제
 - 역사 / 민주주의 주제
 - 국가의 공공 정책 / 외교 주제
 - 주변 인물들이 생산한 기록, 수집된 증언 주제
 - 역대 대통령 소장분, 행정 박물 주제
 - 역대 대통령이 국·내외 적으로 받은 선물 주제
 -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형태의 전시 서비스 및 학생들이 관심 있게 접근하고, 배울 수 있는 형식을 고려
 - 온라인 전시
 - 현 기록관 내 전시를 온라인으로 재 포맷 해서 전시
 - 기록관 내에서 철수된 전시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 온라인상으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는 전시 서비스가 가능
 - 어린이 수준에 맞는 포맷의 전시 콘텐츠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친밀한 접근과 쉬운 이해를 이끄는 효과 기대
- 여섯째, 지속적으로 대중과 소통 할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어야 한다(Communications and Public Relations).

다가능 국가기관인 대통령 기록관은 다양한 이용자층을 형성할 것이므로, 항상 사회 구성원과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역사적 의미를 갖고 대통령 기록관이 설립되고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중이 몰라서 이용할 수 없다면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끊임없이 존재를 노출시키고 사회에 기여하여 이용자의 긍정적 인식 고취와 잠재적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적용 예]

- 마케팅
 - 이용자 관점의 업무 절차와 컬렉션에 대한 재평가
 - 우선대상이 될 집단 선정하여 특성, 관심사 미리 파악
 -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소요 자원 계획, 확보, 운영
- 출판
 - 기록관 안내 리플렛, 팸플렛, 소장 자료집 발간
 - 역대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저술물 출판
- 이벤트
 -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군 공개 행사
 - 주말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엄
 - 어린이 대상 행사
 - 관련 주제의 학생 글쓰기 대회
 - 관련 출판물 저자 사인회, 강연회, 전직 대통령 초청행사, 음악회, 오디터리움 및 시

실 대관(장소제공을 통한 홍보 방안)

- 다양한 매체 홍보
 - 기록관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전달 도구
 - 소식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등에 자주 존재 노출
- 기록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 이용 상의 불편 / 불만 사항 의견 개선 방법, 통로 명시
 - 기록관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에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가 고도로 진보하였고 다양해졌으며, 시간·공간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현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동적 행정 행위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이용자 만족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다가능 국가기관이 될 대통령 기록관 으로서는 열람서비스에 주력하던 기존의 기록관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현재 이용자에게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재방문·재이용의 기회를 유도하고, 잠재적인 이용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기록관 존재를 알려서 소장 사료와 기록관 존재에 대한 가치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서비스’라는 개념의 확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행정 소홀로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던 우리나라 국가 기록 관리에 참여정부의 위로부터의 혁신이 한 획을 그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 기록 관리를 통해 행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한 현 참여정부와 대통령은 후대에 적어도 “기록관리 혁신”이란 공적으로는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 국가적 당면 과제, 정치적 행정적 리더십을 고려하여 역사적 증거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이 있고,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를 위한 대통령 기록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이 가진 지위와 권한에 따르는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아보고,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 중심 행정 서비스로의 환경 변화를 직시하여, 다기능 국가기관인 대통령 기록관이 가져야 할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기록관이자 박물관이며 연구·교육 센터로서 대통령 기록 박물관이 서비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미국의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첫째, 이용자 세분화를 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수집,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역사 연구 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으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가치 전달을 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대중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시된 원칙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은, 첫째, 기록관 목적과 제안된 지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조직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통령 기록물의 완성을 위해 비정상적 유출분 회수에 대한 현실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역대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수행한 대통령직에 대하여 역사 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 시켜야 할 것이다. 그 중점 과제가 ‘공적’에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과오’만을 들춰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공적과 과오’를 얼마나 조화롭게 배치시켜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서비스 하느냐가 남겨진 숙제이자 과제일 것이다.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나는 “진보란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데서 온다”라고 했다. 특히, 후대의 역사적 심판을 거쳐야 할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핵심 기록은 철저히 보존되고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평가는 기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8월28일 일부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6월12일 일부개정)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6년 7월 국회 상정)

[국내 문헌]

김경남. 2003.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실무.”
「기록보존」 제16호, 정부기록보존소.

김충남. 1998.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도서출판 등지.

김정해. 2000. “조직학습과 대통령부.” 「이화행
정」 no.9,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희숙. 2004. 「인터넷을 통한 기록관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주희경.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제도 확립」,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
위논문 (1999)

최정태. 1997. “우리도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만들
자.” 「도서관 문화」 38호, vol 6. 최정태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부산대학교
출판부(2004).

함성득. 1999. 「대통령학」. 나남출판.

Heron, Peter. 2001.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
론 : Assessing Service Qualit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은

철 역, 한국도서관협회(2001).

O'Toole, James M. 2004. 「기록의 이해 : Un-
derstanding Archives and Manu-
scripts, SAA Fundamental Series」. 이
승익 역, 진리탐구.

Pugh, Mary Jo. 2004. 「정보서비스론: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AA, 1992」. 설
문원 역, 진리탐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 전문위원
회,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2005. 7).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설명자료,
(2006. 7)

세계일보 '기록이 없는 나라-2 주요 국가 기록이
없다'(2004. 5. 30)

조선일보, 기록보존 엉망인 나라의 황당한 실태,
(2005. 10. 28)

중앙일보 2007. 어젠다 7 ① 역대 대통령 기록도
서관 만들자(2007. 1. 2).

참여연대 이슈 리포터 참여연대 정보공개 사업단
대통령관련 기록물 목록 작성 및 공개 실
태에 대한 참여연대 평가 보고서 2006,
(2006. 5. 4.)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 보고서, 대통령기록물
의 효율적 관리 방안(2006).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고객만족(CS)행정혁신 모
델 실행 기본 매뉴얼(200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제도 혁신 팀 보도자료
(2006. 2. 14)

[국외 문헌]

- Forde, Helen. 2005. "Access and Preservation in the 21st century: What has changed?"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vol.26, no.2.
- Stout, Leon J. 2002. "Reimagining Archives: Two tales for the information age," *The American Archivist*, vol.65. (spring/summer),
- Weir, Christopher. 2004. "The marketing context. Outreach: luxury or necessit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vol.25, no.1.
- Yeo, Geoffrey. 2005. "Understanding users and use : A market segmentation approach,"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vol.26, no.1.
- NARA Staff Bulletin, no.554, July/August 2006.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 미국 국립문서관리국 연간보고서
〈<http://www.archives.gov/about/plans-reports/performance-accountability>〉
- 트루먼 대통령 기록 박물관
〈<http://www.trumanlibrary.org/>〉
- 케네디 대통령 기록 박물관
〈<http://www.jfklibrary.org/>〉
- 존슨 대통령 기록 박물관
〈<http://www.lbjlib.utexas.edu/>〉
- 카터 대통령 기록 박물관
〈<http://www.jimmycarterlibrary.gov/>〉
- 레이건 대통령 기록 박물관
〈<http://www.reagan.utexas.edu/>〉